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충남미 권역



## 멕시코 마법의 마을 여행기

윤장훈

멕시코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주변에 멕시코 여행을 간다고 알렸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거기 요즘 위험하다던데...” “항상 안전 조심해라”였다. 독자분들도 멕시코에 대한 이미지가 딱히 긍정적이라 생각되진 않는다. 당장 인터넷에 멕시코를 검색해 봐도 마약 카르텔이나 치안 문제가 뜨지 훈훈한 뉴스를 찾아보긴 힘들다.

처음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을 땐 걱정이 이만저만

이 아니었다. 한적한 거리도 괜히 무서워 보이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 소매치기라도 할까 봐 신경을 곤두세웠다. 멕시코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소칼로 광장을 구경 갔을 때도 중간중간 주머니에 뭔가 없어진 게 없나 확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주변 환경에 익숙해졌고, 주의는 기울이되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친절하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멕시코라는 나라에 적응할 수 있었다.



톨룸

처음 멕시코에 왔을 땐 과나후아토, 칸쿤, 멕시코시티 같은 유명 관광지만 가 볼 계획이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멕시코 여행이 아쉽게 끝날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멕시코는 인구가 1억 2,000 명에 달하며, 영토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약 19배나 된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나라인 만큼 문화와 자연경관 모두 볼거리가 많은 나라다.

멕시코를 어떻게 여행할지 고민에 빠진 찰나, 우연히 한 블로그에서 푸에블로 마히코 (Pueblo Magico)에 대해 알게 됐다. 푸에블로 마히코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마법의 마을로 멕시코 정부가 자국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관광 프로그램이다. 이 마법의 마을들은 멕시코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들이라 사실상 멕시코를 대표하는 베스트 관광지나 다름없다. 개인적으로 도시를 여행하기보다는 한적한 소도시에서 시간을 보내길 좋아하기 때문에, 멕시코 마법의 마을을 여행해 보기로 결정했다.

약 7개월의 시간 동안 멕시코 전국 32개 주에 있는 마법의 마을 50곳을 다녀왔다. 개인적으로 꽤 많은 곳을 다녀왔다고 생각했는데, 2022년 기준 마법의 마을이 132곳이나 있으니 절반도 가보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법의 마을 여행은 내가 알고 있는 멕시코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바꿨다. 이전에 내 머릿속에 있는 멕시코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셈이다. 여행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곳을 봤고, 하나 같이 친절han 사람들을 만



하넛지오

났으며, 이전엔 몰랐던 멕시코의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마법의 마을 여행을 크게 멕시코 북부, 중부, 남부 세 지역으로 나누어 간략하게나마 공유해보고자 한다.

먼저 남쪽 지역은 마야 문명이 꽃을 피웠던 곳이다. 마야 문명은 예전 고대 그리스 문명이 그랬듯이 도시 국가로 발전하며 멕시코 유카탄 반도 정글 이곳저곳에 흔적을 남겼다. 남부에 있는 동안 7대 불가사의에 속해 있는 치첸잇자를 비롯해 툼, 팔렌케를 방문했는데, 정교하게 지어진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마야 사람들의 뛰어난 수학, 천문학, 예술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또 남부 지역의 마법의 마을하면 TV 프로그램 ‘서진이네’ 촬영지 바칼라르도 빼놓을 수 없다. 천연 우물인 세노테와 더불어 일곱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호수가 있는 바칼라르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호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법의 마을이었다.

한편 남부 지역하면 와하카주도 빠트릴 수 없다. 와하카는 멕시코에서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 중 하나다. 특히 틀라유다 (Tlayuda)라 불리는 음식을 꼭 맛봐야 하는데, 틀라유다는 거대한 토르티야 위에 콩과 고기, 야채를 골고루 올려 먹는 와하카식 피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와하카 시내에 있는 누뇨 데 메르카도 거리와 11월 20일 거리가 만나는 곳에 있는 라 치나타 (La Tlayuda)는 음식 다큐멘터리로 촬영되어 넷플릭스에서 방영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저녁 8시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이곳은 조금만 늦으면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의 맛집이니 한 번쯤 먹는 것을 추천한다.

와하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마법의 마을은 우아우틀라 데 히메네즈였다. 북적이는 와하카 도심을 벗어나 봉고차 버스로 험한 산길을 네 시간쯤 가면 나오는 산속 외딴곳에 있는 마을이다. 이른바 버섯 마을로 알려진 이곳은 마리아 사비나라는 샤머니스트가 환각 버섯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준 곳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비틀스와 롤링 스톤까

지 마리아 사비나를 만나 영적인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아우틀라 데 히메네즈는 버섯 말고도 주변에 있는 산과 폭포를 구경하기 좋은 곳인데, 특히 고도가 높아 발아래 구름이 놓여 있는 정말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제 시선을 돌려 멕시코 중부 지방의 마법의 마을을 살펴보도록 하자. 중부 지방은 유난히 화산 활동이 많은 곳으로, 화산을 볼 수 있는 마법의 마을로는 베라크루스주의 오리사바와 푸에블라주의 출룰라가 있다. 먼저 오리사바는 멕시코에서 가장 큰 산으로 알려진 오리사바 산을 볼 수 있는 곳이며 도시 안에는 프랑스의 에펠이 디자인한 철의 궁전이 있다. 반면 출룰라는 멕시코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었던 곳으로, 훗날 스페인 정복자들이 피라미드 위해 새운 노란 교회가 우뚝 서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출룰라의 경우 10월 말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때 썬파수칠이라 불리는 주황색 꽃이 피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선 멕시코 최대 명절로 꼽히는 망자의 날에 썬파수칠로 장식을 하는데, 이 꽃이 망자의 앞길을 안내한다고 믿고 있다. 출룰라는 옆에 있는 아틀리스코와 더불어 멕시코에서 썬파수칠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인 만큼 주변 밭이 온통 주황색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

한편 멕시코 망자의 날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마법의 마을이 바로 팻스쿠아로다. 미초아칸 주에 자리한 팻스쿠아로는 과거 푸레파차인들의 문명이 발전했던 곳으로, ‘하늘로 가는 문’이라 불릴 만큼 신성하게 여겨진 곳이었다. 이 마을은 죽은 자들을



우아우틀라 데 히메네즈



아르테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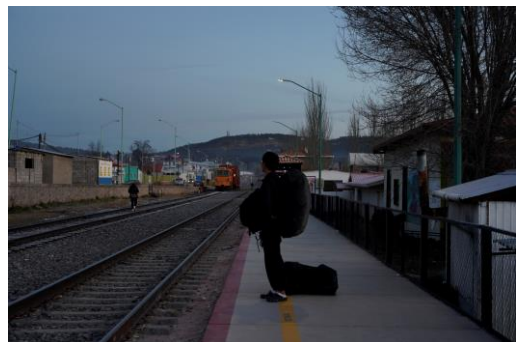
기리는 전통이 탄생한 곳이며 멕시코에서 죽은 자의 날 축제가 가장 크게 열리는 곳이다. 근처에 있는 하닛시오 (Janitzio) 섬에서는 11월 1일 밤 망자들을 위해 묘지에 썸과수칠 꽃과 촛불이 켜진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일 년 전부터 숙소 예약을 할 만큼 인기가 많은 곳이라 아쉽게도 망자의 날 당일 섬에는 머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북부 지역도 인상 깊은 마을들이 많은 곳이다. 사실 처음 북부 지역 여행을 계획했을 때 중부와 남부 지역보다 기대를 덜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부 지역은 공업 도시 이미지가 강한 도시로 몬테레이나 티후아나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처음 생각과는 달리 북부 지역에는 그곳 만의 특별한 마법의 마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북부의 마법의 마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치와와주에 있는 크릴이었다. 크릴은 멕시코 치와와

주와 시날로아주를 잇는 체페 익스프레스 기차가 지나가는 곳으로, 12월에 방문했을 때 진눈깨비가 내릴 만큼 추운웠다. 크릴에서 기차를 타고 또 시날로아주의 마법의 마을인 엘 푸에르테를 여행했는데, 약 7시간의 여정 동안 구리 협곡의 압도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북부 지역의 또 다른 인상 깊은 마법의 마을은 코아울리아주에 있는 아르테아가였다. ‘멕시코의 스위스’라 불리는 이 마을은 끝이 뻗은 침엽수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어 정말 스위스나 캐나다 어딘가에 있는 느낌을 줬다. 아르테아가에서 가장 잘 알려진 숙소 중 하나로는 몬테레알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산장으로 된 숙소에 머물며 크리스마스 감성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멕시코에서의 크리스마스는 날씨도 덥고 밋밋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 보다 더 크리스마스 다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이었다.



크릴



지난 7개월 동안 앞서 언급한 마법의 마을 말고도 다양한 마을들을 방문했다. 모두 다 하나같이 특별한 곳이었고 개성 넘치는 곳이었다. 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 건 그곳에서 만났던 친절한 멕시코 사람들 덕분이었던 것 같다. 처음 걱정과는 달리 우리가 더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은 멕시코란 나라를 자세히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 여행을 통해 직접 느껴본 멕시코는 상상 그 이상이었으며, 동시에 이전에 갖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여정이었다.



바칼라르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 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